

주최	주제	날짜
대각사상연구원	백용성스님과 불교계의 노동문제	9월9일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제50회 학술대회	9월9·10일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관음도량과 해조음의 관계 외	9월11일
한국미술사연구소	발해의 미술	9월11일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사에서의 사명당의 의미	9월17일
고려대장경연구소	비판불교의 인도철학 이해에 대한 검토 외	9월18일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21세기 불전전산화 방향	10월6일
성철선사상연구원	성철스님의 사부대종교학 외	10월8일(예정)

주최	주제	날짜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마을에 대한 유물 비교연구 외	10월9일
고려대장경연구소	비판불교에 대한 서양철학 입장에서 접근	10월16일
보조사상연구원	제23차 월례발표회	10월23일
한국종교학회	21세기 종교와 종교학	11월6일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한국불교 정보화의 과제	11월6일
고려대장경연구소	미츠모토 시로 강연 및 토론회	11월20일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원시 선정 구조의 일고 외	12월11일
보조사상연구원	제24차 월례발표회	12월26일

하반기 학술발표회

대각사상연구 · 종교학회 · 대장경연구 · 동국대 불전연구 등

하반기 불교학술회의 '풍성'

노동·복지·전산정보화·비판불교 등 '주제 다양'

올 하반기 불교학계는 노동문제, 복지, 서양학자들의 불교연구 비판, 불교계 전산정보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풍성한 학술발표회가 준비되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세미나는 대각사상연구원의 대각회 창립 30주년 세미나. 그동안 학계에서 외면받아 오던 불교계에서의 노동문제를 선봉불교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조명할 계획이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대각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사 연구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불교계의 노동문제에 대한 기념세미나를 9월9일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백용

성스님과 불교계의 노동문제-선봉불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이 '백용성스님의 후반기의 생애'를 기초강연으로 발표한다. 이어 김광식 박사(대각사상연구원)가 '백용성스님의 선봉불교'를,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이 '선봉교의 노동문제'를, 박경준 교수(동국대)가 '인도불교계에서 있어서의 노동문제'를, 유필화 교수(성균관대)가 '불교교리와 현대의 기업경영'을 발표한다. 주제토론에는 정광호 교수(인하대), 신규탁 교수(연세대), 이종철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윤원철 교수(서울대) 등이 참가한다.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위원장 해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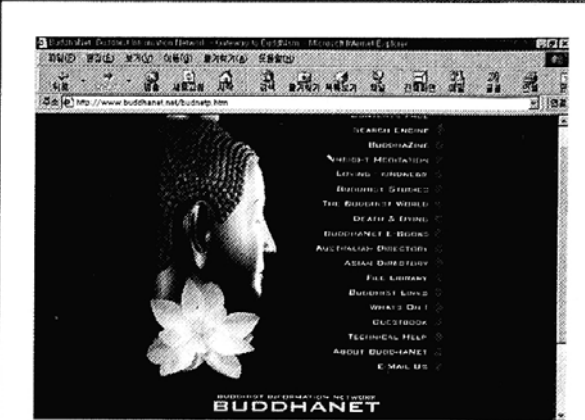
올해 네 번의 발표회를 갖는다. 9월, 10월, 12월은 본과의 월례발표회로 '관음도량과 해조음의 관계'(조용현), '마을에 대한 유물 비교 연구'(허정희), '화엄사상'(사도, 이효걸), '원시 선정 구조의 일고'(김형준) 등이 발표된다. 11월6일에는 '21세기 종교와 종교학'을 열리는 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불교 사회복지'(김응철), '서양 학자들의 불교연구에 대한 비판'(이동휘) 등이 발표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9월·10월 양일간 개최하는 제50회 학술대회에는 '한국불교의 예수재에 관해'(법산스님), '의상의 법계연기관'(도업스님), '원효의 화쟁원리-화엄일심에 관해'(해주스님), '사무량수에 대하여'(김형준), '밀교승 예초의 재교할'(이정수) 등이 발표된다. 한국미술사연구소는 9월11일 국립중앙

박물관 강당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발해미술의 국제성과 한국적 특징'을 주제로 '발해상경불교조각의 연구'·'동경성의 불상'(임석규), '크리스티노 사원지의 불교 미술'(불단), '상경성 건축'(이강근) 등 9편이 발표될 예정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의 비판불교 세미나는 9월 10월 각각 비판불교의 여래상과 본각사상 이해에 대한 검토(최정규), 비판불교의 인도철학 이해에 대한 검토(이은덕), 비판불교에 대한 서양철학 입장에서 접근(소흥렬·김옥신) 등을 발표한다. 이어 11월에는 비판불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마츠모토 시로 박사를 초청 강연을 듣고 토론을 개최해 1년동안의 세미나를 결산한다는 방침이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는 국내 최초로 '21세기 불전전산화 방향'을 주제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준)는 '한국불교 정보화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10월6일, 11월6일 개최할 계획이다. 불교계에 강조되어온 전산정보화 과제가 이 두 세미나에서 세세하게 밝혀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성철선사상연구원의 추계학술대회와 보조사상연구원의 월례발표회 등이 있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n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붓다넷

유럽전역에 중국불교 포교 전담 선시·법문·법계도 등 알짜정보

티벳불교가 주류를 이룬 유럽 지역에 중국불교의 포교를 전담하는 '붓다넷(buddhanet)'이 개설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사이트는 영국의 서남부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브리스틀 선봉교'가 주류가 돼 영국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 활동했던 유관단체들이 모여 지난 9월 초에 브리스틀에서 결성됐다.

'붓다넷'의 웹마스터 존 크록씨는 성업스님(대만)의 법제자. 성업스님은 지난 63년부터 일본·미국 등지에서 선(禪)센터를 개설해 중국불교의 포교에 전념한 스님. 따라서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중국불교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중국불교계관 △수행관 △전장장도 △전자잡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붓다넷이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법문, 선시, 선봉교우회의 활동과 관련사건 등이 실려있는 전자잡지인 '禪광장(New Chan Forum)'과 중국 선불교의 '법계도' 등이 불자네트즌의 호기심을 충분히 충족시킬 정보이다. 이외에도 뉴욕·캘리포니아·대만 등지에서 중국불교의 포교에 노력하는 선(禪)센터와의 링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링크 서비스 가운데 '미국불교회(The Buddhist Association)' 사이트는 미주지역에서 중국불교의 교세를 엮기 위해 방문해 불지하다.

불교회는 중국불교학에 관심을 가졌던 중국계 미국인의 모임인 '리하이 불교클럽(Lehigh Valley Buddhism Club)'에 기원을 두고 1987년에 설립된 펜실베이니아 지역의 중국불교계 학술·신행 단체.

불교회는 펜실베이니아의 장엄사에서 회의, 포럼, 법회 등을 개최하고 뉴스레터도 발간, 배포하고 있다. 장엄사는 대불전, 관음전, 인공루, 천련재, 태허재, 도서관, 식당 등의 건축물과 칠보호(七寶湖) 등을 갖춘 대규모 사원.

또 불교회 회원들은 중국의 한문장경을 연구하기 위해 불교 전자신문 공덕회(The Electronic Buddhadharma Society)라는 학술기구도 설립, 지원하고 있다. 이 공덕회는 대만야경, 불학 사전등의 불교 자료를 입력하여 CD-ROM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상세한 보고서를 한글문(BIG-5)으로 읽을 수 있으며 일러한 자료들을 일부 샘플(영·한)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선불교 개론·영상·불교일반 등의 정보를 비롯해 티벳과 관련 티벳불교·문화자료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제작된 불교영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가운데 '명상과 무소유'(알란 와츠, 시인) '선불교 소개'(다 이도 로리, 禪사원 원장) 등을 비롯 6개의 선불교 관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로 꼽히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역시 이 사이트에서 눈에 띄는 정보.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소광섭교수 '물리학과 대승기신론' 기독교 언어사용 불교해석 '논란'

물리학과 불교교리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물리학과 대승기신론>(서울대출판부 刊)이 불교사상의 진수인 <대승기신론>을 기독교적인 언어로 해석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승기신론> 해석에 있어서 진여(眞如)를 하나님, 여래(如來)를 하나님의 아들, 여래장(如來藏)을 하나님의 품, 법신불(法身佛)을 하나님 아버지, 보신불(報身佛)을 하나님의 성령, 화신불(化身佛)을 하나님의 아들, 마하연(摩訶衍)을 큰 수레 또는 하나님, 일심을 한마음 또는 하나님 마음, 정법(淨法)을 하나님의 진리, 무명(無明)을 사탄 등으로 해석한 것이다.

'하나님'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불교와 기독교의 사상적 접근과 상호 이해가 가능하도록 시도했다는 저자 소광섭 교수(서울대)는 "불교와 기독교는 두 사상이 본질적으로 달라서가 아니라 단지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이해가 불가능하다. <대승기신론>을 번역하

김동화 박사 전집 12권 내년가을 완간 예정

동대 불교사회문화연구소(원 김동화 박사)가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불교학개론> <불교리발달사> 등의 논저를 비롯해 수필 잡지에 이르기까지 원고 3만매에 달하는 평생 저술이 12권 전집으로 내년 가을경 선보인다.

뇌허불교학술원(원장 관응스님)은 8월21일 뇌허 김동화 박사 전집 간행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12권으로 전집을 완간하기로 하고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진 박사의 저술은 가급적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 장지연 기자)



장·윤호진스님)이 자료수집과 편찬관련 업무를 맡았다.

일본 임정대학에서 불교교리발달사를 연구한 김동화 박사는 1947년 동국대학교 교수가 된 이후 학장 대학원장 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등을 거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

1972년 학술원공로상을 받은 뒤 학술원 중신회원이 됐다. 김 박사의 업적을 기리며 불교학 발전을 위해 뇌허불교학술원은 뇌허학술상을 제정했다.

'동원학술논집' 제1집 발간

한국고고미술연구소(이사장 정양모)가 <동원학술논집> 제1집을 펴냈다. 1집에는 '15세기 조선자기양식에 관한 연구'(김영원), '금공품을 통해 본 5~6세기 신라의 집권화과정'(이한상), '5~6세기 신라의 무기 변화와 화상과 그 의의'(김길식), '신라 도성의 교통로에 대한 연구'(박방룡) 등의 논문이 실렸다. 이외에도 '해동명산도첩'(이원

학술단신

북) '임실 증기사 석조비로자나 불좌상에 대한 고찰'(최선주) 등의 학술조사보고도 담겨있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성무)는 8월2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각종 역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전산화 작업

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불교사 경제사 등 한국사 관계 자료를 전산화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거나 CD롬으로 제작해 학계나 일반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친근하게 다가오는 국편을 만들기 위해 우리역사의 중요 쟁점들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일반인을 위한 교양과정 개설도 검토 중이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무문관
후은
"너는 누구냐"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수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정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발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재 기자)

한형조 지음/ 66 변형 394쪽 / 값 6000원